

# 만남

09

2021

통권 57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영락 지금



## 제61회 산상기도회

제61회 산상기도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회 본당에서 온라인 비대면 집회로 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기도회는 1차 7월 28일(수)~30일(금) 김운용 목사(장신대), 2차 8월 4일(수)~6일(금) 이동원 목사(지구총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사진은 코로나 시국에 기도회가 진행된 썰렁한 본당의 모습. 작은 사진은 외부에서 촬영한 갈릴리찬양대의 영상찬양.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35)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9월입니다! 김운성

- 특별기획** **04** 군선교 <비전 2030>에 관하여 권오성  
**08**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 박재훈 목사 박신화

**기획연재** **12** 예수님이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나사렛·가버나움 소기천

- 특집** **18** 눈물로 위로하셨습니다 장이금  
영락의 여름 **20** 나도 엘리야처럼 김효진  
**22** 수유리 기도원의 추억 안자이  
**24** 온라인으로도 즐거웠던 여름수련회  
**26** 우리는 예수님의 ‘강철 군사’입니다 최준호

**땅끝까지 이르러** **28**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대 이혜경  
**30**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선교사 정해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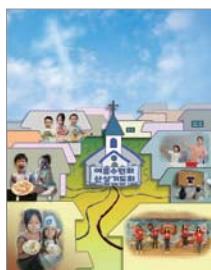
- 야곱의 우물가** **3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천우  
**34** ‘덜 쪘진 찐빵’ 같은 나 김병기  
**36** 말씀과 기도, 삶을 나눈 소그룹 리더 교육 안수집사회

- 영락의 울타리** **38**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현성인  
**40** 성전을 함께 청소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권오란  
**44**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정영주  
**46**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락애니아의집 조지영  
**48** 신약개발 과정과 최신 경향 고여욱

- 문화광장** **51** 출애굽의 메아리 조두형  
**52** 2021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54** 웹툰 <괜찮다> 이화선  
**57** 새벽의 노래 이정희

- 교회소식** **58** 2021 영락청년 미션워크 외  
**59**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 9월 목회력

## 표지설명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여름수련회와 산상 기도회 등 교회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작 김갑수 편집위원

# 9월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15)

예전의 제게는 1월이 ‘시작하는 달’이라면, 9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9월에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아쉽다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1월에 했던 많은 다짐과 열정이 중간에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짐을 언제 잊었는지, 그 열정이 언제 식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없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름방학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방학하는 날 받아든 성적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께 회개(?)합니다. “엄마,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에는 더 잘할 거야” 어머니는 제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날려버린 시간이나 좋지 않은 성적 따위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방학을 맞이한 기념이라며 특별히 준비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저녁을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방학 중 실천할 생활계획표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실천 불가능한 계획표를 만듭니다. 하얀 도화지를 펴놓고 컴퓨터로 큰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스물네 등분하여 칸을 나누고, 온갖 색연필을 동원해서 글을 써서 넣습니다. 취침 시간, 하루 세끼 식사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전부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의 위와 아래에 커다랗게 별

별 구호를 다 적어 넣습니다. 그리곤 책상 앞에 붙입니다. 부모님도 흐뭇해하시면서도 웃으십니다. 왜 웃으실까요? 제가 다음 날 아침부터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부터 실패합니다. 우선 기상 시간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그 후엔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조금씩 잊히다가 나중엔 생활계획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한풀 꺾였다고 말할 무렵이면 정말 마음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방학 숙제와 일기는 잔뜩 밀렸고, 개학 후 바로 치를 시험 준비도 부실했습니다. 긴긴 방학 동안에 무엇하고 이 모양이 되었을까 후회하면서 개학이 이, 삼 일쯤 남은 날에서야 서둘러 엉터리 일기를 쓰고 밀린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책상 위와 서랍을 정리하고, 2학기 교과서에 이름을 적고, 달력을 뜯어 책 표지를 썹니다. 개학하는 날, 다른 애들은 어땠나 탐색해 보면 저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안심(?)합니다. 그렇게 9월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어리석은 삶은 어른이 된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심이란 단어보다 어감이 더 강한 ‘결단’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수도 없이 결단합니다. 마음 벽에 계획표를 붙입니다. 그리곤 허전한 마음으로 개학을 준비하던 때처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앉곤 합니다.

9월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2021년도 삼 분의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

대로 365>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2학기를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듯이, 주님 앞에 앉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 우울함, 부질없는 욕망, 그 사이로 늘 솟아오르는 타인에 대한 미움, 시기, 교만 등의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우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백합시다.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했지요? 다행스러운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명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기회도 세 번을 주셨습니다. “세 번 부인했다고? 괜찮다. 그 만큼 날 사랑하면 된다. 미래는 과거의 지우개다. 다시 잘해 봐라. 그래서 지난날의 부족함을 메우고, 부끄러움을 지워라.” 예수님이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꽉 밀리기도 합니다. 도로가 뻥 뚫려 좋았는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눈을 붙이고,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이 깜깜해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휴게소에서 재충전하고,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9월입니다. **만남**

## 군선교 <비전 2030>에 관하여

<비전 2030>은 믿음의 선배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 2020>에 기독교 정신과 교회적 사명을 담은 군복음화에 대한 계획이다. <비전 2030> 수립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 계획을 발전시키는 역할의 중추가 바로 ‘군종 목사단’이라는 점이다.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고, 군선교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역자가 군종목사이기 때문이다. 2020과 2030의 가장 큰 차이도 바로 이것이다. 군목단이 과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재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모두의 소망이었다. 현재의 군목은 물론이고, 향후에 임관하는 군목들로 대를 이어서 그 실행력을 높여갈 것이다. 군복음화에 큰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비전 2030> 수립 과정에서 군목단은

① <비전 2020> 추진결과 분석, ② 병영 환경의 변화 고려(복무기간단축, 병력감축), ③ 군인교회와 군종목사단이 실행의 주체, ④ 육해공군해병대의 선교 환경 차이점 식별, ⑤ 육해공군해병대 군목단 내에 <비전 2030> 추진 조직 설치에 관한 방향 설정, ⑥ 군선교 회원 교회인 민간교회 정비에 관한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육군 16개 지역 군목단 내의 각 군인교회와 연합하여 군선교 대토론회를 통해서 계획수립의 출발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공감을



권오성 장로  
국군중앙교회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회장  
전 육군참모총장

형성하면서 알차게 실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매우 실효적인 과정이며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비전 2030> 실천운동 본부장으로서 비전실천운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① <비전 2020>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총평은 수립한 목표를 숫자상으로 달성하지 못했지만 군복음화와 한국교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년 평균 약 17만 명에게 세례를 집례함으로써 한국기독교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썼다. 1990년대 당시 25년 앞을 내다보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 해오신 한국교회와 교단, 군종목사단,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움과 기도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② 현재 군의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병력은 육해공군해병대가 50만 명 규모로 축소된



다. 육군의 경우는 병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부사관의 숫자가 확대되어 점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병력 순환주기가 빨라진다. 평일 외출·외박제도, 병영 내 휴대폰 사용 등 병영 내의 선교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군조차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군부대 수의 감소나 통합으로 주둔지는 물론 군인교회 숫자도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몇 가지 적시한 변화가 앞으로 군 선교 현장과 중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필자는 2030이 10년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선정한 것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예측에 실패하면 비전에 많은 수정이 요구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언급한 대로 부사관 증가에 따른 양육기관에서의 세례 집중 문제, 양육 활동의 주체 선정 등을 과제로 선정한 많은 의견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 변화에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노정되는 예측치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과제이다.

③ 군인교회에서 군선교의 주체는 ‘군종목사단’이라는 사실에 다시 주목한다. 군선교의 현장을 다루는 군목단이 소요제기로부터 세례-식별-양육-연결 과정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에서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대급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또 하나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군선교사들이 대대급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구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기초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차후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KMCF(Korea Military Christian Follow ships)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군종목사단과 합일된 하나의 공동체로 모든 활동을 통합하고 연계해야 한다.

④ ‘군선교연합회’의 역할이 지금까지 리딩(leading-선도)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서포터(supporter-지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선교연합회가 지원조직으로 잘 성장해야 군선교의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특히 군선교연합



회에 대한 이미지가 군선교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이때 Supported와 Supporting의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즉 Supported는 군종목사단이고 Supporting은 군선교연합회라는 등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교단과 대형교회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야만 각 유관기관의 임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

⑤ ‘기독교 군종교구’ 역할수행을 위한 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기독교 군종교구는 군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창구로 역할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정책의 출입구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용하는 통로를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계를 세워야 한다. 또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군종교구와 민간 교단과의 관계, 육해공군해병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구의 정책 수립,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정비해나가야 한다. 지역 군목단의 편성, 장로회/안수집사회, 기독부인회, 총회 등과 같은 조직과의 상호관계도 설정해야 한다.

### 100만 용사를 한국교회로

군선교 <비전 2030>을 현재 군목단의 의견에 기초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와 구호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용사를 한국교회로!’이다. 이는 이미 세례 받고 입대한 4만여 명에 더해 육해공군해병대를 합친 6만여 명의 신규 세례자를 포함해서 매년 10만여 명을 10년 동안 양육해서 한국교회로 파송한다는 것이다.

첫째, 새신자는 진중세례를 통해 6만 명을 신자화하고, 지역 군목단별로 정착 및 양육하고 제자화한다. 1년에 군인교회 용사 1명씩 책임지고 전도 및 양육한다. 크레덴시알(credential : 출석스탬프), 예배참석 권장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대급 교회의 복음 설교를 신세대 눈높이에 맞게 격주 차로 대대급 교회에 제공한다. 특히 ‘성과지향의 진중세례’를 ‘정착지향 진중세례’로 전환한다. 세례식보다는 ‘세례받기까지의 과정’에 선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대 상황에 적합한 세례자교육모델 연구를 통해 무분별한 세례 시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세례자 장병 4만 명을 잘 관리해서

소속 교회로 파송한다. 세례교육-신앙고백-세례-정착-양육(제자화)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제자화하는 것이다. 양육도 한 영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전인격적 과정’임에 중점을 두어서 ‘주일성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겠다는 개념’으로 추진한다.

셋째, 기독간부와 군인가족은 모든 군인교회 성도를 1년에 1명씩 책임지고 전도와 양육을 한다. 군인교회 1인 1사역 캠페인을 벌인다. 군인교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사역을 활성화한다.

넷째, 군선교 회원교회는 도시(지역) 별로 거점교회를 확보하고 파송시스템을 정비해서 ‘군선교 회원 거점교회’로 파송을 추진 및 연결하고, 도시 별로 회원교회를 활발하게 모집한다. ‘브리스길라-아굴라’ 프로젝트, 즉 군선교 회원교회에서는 신실한 군선교 동역자 부부를 모집하여 1년간 대대급 군인교회을 섬기고 돋는다는 개념을 추진한다. 군인교회와 회원교회가 정례적으로 군선교 교류를 한다.

다섯째, ‘비전 2030 추진운동본부’를 ‘육군 군인 교회’ 내에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비전을 홍보하며 교육을 하고 육군군인교회에 총회를 설립해서 유일한 유기적인 군 선교조직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군선교 교역자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비전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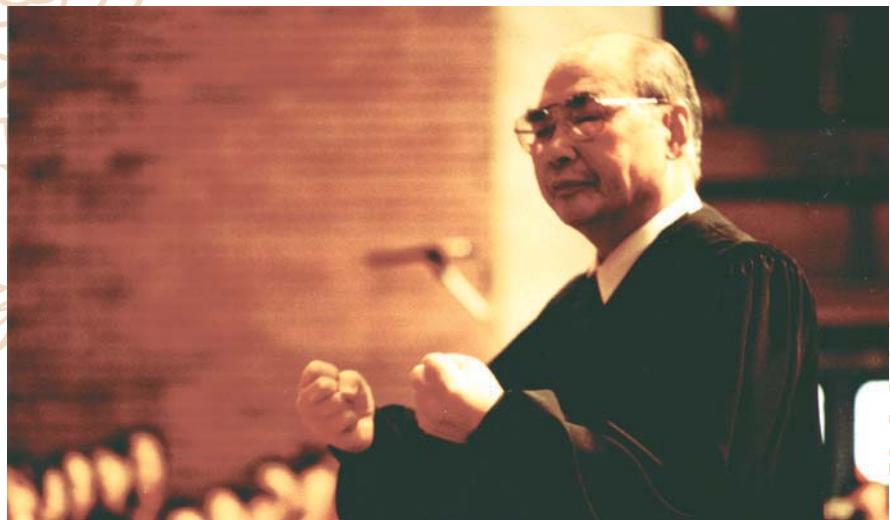
‘비전 2030 실천운동본부’는 군종목사단이 수립한 ‘비전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군선교연합회에서 작성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해서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 〈비전 2030〉 본부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체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세례 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하는 ‘세례지원단’을 편성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믿음의 장병들과 군선교 교역자를 육군훈련소를 비롯하여 장소별, 육해공군 영역별, 양성교육 기관별로 조직과 인적 편성을 완료했다. 둘째는 군선교의 선교 현장을 ‘군단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군선교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섬기고 돋는 역할에 책임지고 앞장설 조직을 정비했다. 이를 ‘영적전투단’으로 명명해서 해당 군목들과 함께 지역교회 세례, 장병과의 예배, 지역 민간교회 방문, 교회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영적 전투단은 거점교회 모집과 회원교회와 관련한 군선교 홍보를 포함한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를 통해서 그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목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의견 제시 등이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 2030이 선포되기를 소망한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모이면 참 좋겠다. “네가 어디 있는냐”를 물으실 때, “예, 제가 군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대답 할 수 있도록 비전 2030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 박재훈 목사



1990년대 초 주일예배 중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박재훈 목사

‘교회음악의 살아있는 역사’,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재훈 목사님이 지난 8월 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대표적인 교회음악 작곡자이며 한국 교회 1호 지휘자라 할 수 있는 박재훈 목사님(1922~2021)은 생전에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남겨주었다.

### 어린 시절 교회의 풍금으로 음악가의 꿈 키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 청소를 했던 박재훈 목사님은 교회의 아름다운 풍금을 연습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 훗날 그는 “라디오도 음악회도 없던 시절,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교회뿐이었다. 3년 넘게 청소를 계속 한 것은 성실했다기보다 예배당에 있던 오르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 시절을 회고했다.

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 진학 대신 농사일을 도

우며 3년간 학교 사환으로 일하던 그는 평양에서 목회하던 큰 형의 도움으로 문요한(John. Moore) 선교사가 세운 평양 요한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벗이자 훗날 자신과 함께 한국 교회음악의 개척자가 되는 장수철, 구두회 선생을 만난다. 이들은 함께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 제국고등음악학교에서 수학했고, 동경 유학 시절 박 목사님은 최초의 4부 어린이 찬송가 ‘아기 예수’를 작곡했다(노랫말은 친구 구두회 선생). 태평양전쟁의 위협 속에 미처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그는 1943년 귀국 후 평양 근교 문동감리교회

부설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만난 전영택 목사의 찬송시 ‘어서 돌아오오’에 곡을 붙여 찬송가 527장을 작곡했다. 이 곡은 미국 장로교 찬송가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도 수록될 정도로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 찬송가와 성가곡, 동요 1,500여 곡 작곡, ‘어머님 은혜’ 등 국민동요 남겨

공산정권의 압제를 피해 월남한 박재훈 목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교회음악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 시기에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를 작곡했는데, 여성 시인 석진영이 보낸 엽서의 시를 읽고 감동해 10분 만에 멜로디를 완성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목사님은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동요들을 작곡했다. ‘송이송이 눈꽃송이’, ‘펄펄 눈이 옵니다’, ‘산골짜에 다람쥐’, ‘숲속의 매미가 노래를 하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엄마 엄마 이리와’ 등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다수의 동요를 이 시기에 작곡했다. 특히 ‘높고 높은 하늘이라’로 시작하는 동요 ‘어머님 은혜’도 그가 작곡한 곡이다. 원래 찬송가로 작곡된 이 곡은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 가사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이 빠지고, 1~2절만 불리면서 일반 동요가 되었다.

그가 작곡한 동요와 성가곡(‘주는 저 산 밑의 백합’,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alleluia 하나님을 찬양하라’ 등)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한다. 또한, 그가 작곡한 ‘여름성경학교 교가’는 매년 여름방학이면 수만 교회의 여름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 1950~60년대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

### 1970년대 이후 캐나다에서 목회와 창작 활동 전념

6·25전쟁 후 박재훈 목사님은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를 시작하며 한경직 목사님과 동역했다. 1959년 미국으로 유학 가서 1963년 귀국하여 영락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로 복귀한 후 10년 이상 봉사했다. 영락교회 9회 시무장로였던 고인은 한양대 음대 교수를 지내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2016년 별세한 박영근 장로님(베들레헴찬양대 창단 지휘자·한양대 음대학장 역임)도 그중 한 분이었다. 1963년에는 교회음악 전문출판사인 ‘교회음악사’를 설립했고, 1964년 전문 음악 잡지 『교회와 음악』을 창간했으며, 『성가 합창곡집』 시리즈를 출판했다. 또한 『개편 찬송가』 편집을 주도했고, 선명회(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의 지휘를 맡기도 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음악위원회장을 끝으로 이민 길에 오른 그는 1977년 캐나다에 정착한다. 1982년 60세의 나이에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캐나다노회에서 늦깎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 토론토 <큰빛장로교회>에서 8년간 담임목사



1971년 시온찬양대 지휘자 시절. 왼쪽부터 강학주 장로, 한기원 목사, 한경직 목사, 정홍자 반주자, 박재훈 지휘자

로 시무했으며, 1989년 조기 은퇴하고 후임 임현수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7년간 찬양대를 지휘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김으로써 후배 목회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그는 만년에 오페라 작곡에도 몰두했다. 1972년에 초연된 그의 첫 오페라 <에스더>는 성경 오페라의 시작이었다. 이후 민족 오페라이자 한국교회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류관순>을 만들었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말년까지 오페라 <손양원>과 <함성 1919>를 작곡했다. 그 공로로 2011년 10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고, 제6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창작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 신앙고백으로서 찬양의 절실함을 강조

박재훈 목사님은 약 800여 곡의 찬송을 작곡함으로써 우리나라 작곡가 중 가장 많은 찬송가를 남겼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의 찬송이 아홉 곡이나 실려 있다. 17장(사랑의 하나님), 301장(지금 까지 지내온 것), 319장(말씀으로 이 세상을), 392장(주여 어린 사슴이), 515장(눈을 들어 하늘 보라), 527장(어서 돌아오오), 561장(예수님의 사랑은), 578장(언제나 바라봐도), 592장(산마다 불

이 탄다 고운 단 풍에)이다. 모두 유명한 곡이지만 그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의 대표적인 찬송가로 꼽힌다. 생전에 이 찬송에 대해 “예수를 그리



오페라 「손양원」 2013년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 포스터



‘메시아’ 한국 초연(1955년 영락교회)

스도로 믿고 매일매일의 삶자를 지고 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힘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라는 구절처럼 주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실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회고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노래’를 작곡했던 박 목사님은 1995년 영락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칸타타 ‘뿌리, 온 땅에 편안하라’를 작곡(작사 송성찬 장로)하여, 영락교회 연합찬양대원 400여 명을 지휘하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주했다. 이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연습 중 늦게 들어오던 젊은 대원 3명을 향해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나가라” 하시며 밖으로 쫓아낸 것이다. 수백 명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 대원들은 “나갈 거예요”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목사님은 분을 참지 못하셨다. 사실 이런 일은 목사님과 찬양대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사로운 일이었다. 목사님은 늘 “찬양 연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나 다름없다. 이 연습에 늦게 오는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며 찬양 연습과 시간 염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마 박재훈 목사님 지휘를 경험했던 찬양



1회 메시아합동대연주회(1964년 12월 시민회관)

대원들은 늦었을 때 연습실에 몰래 기어들어 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 믿음으로 달려갈 길 완주한 주님의 종

최근 박재훈 목사님은 <성 요한 수난 음악>을 작곡하여 2022년 부활절에 갈보리찬양대가 연주하기를 의뢰했다. 또한, 이 곡의 작곡을 마치자마자 오페라 <이승만>을 써 내려가며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려 했다. 고령에도 생애 마지막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던 고인을 임현수 목사는 이렇게 추모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처럼 목사님을 장수하게 하시면서 한국 음악의 원로, 한국 동요의 대부,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한 찬송가 작곡가, 오페라 작곡가, 100년 교회 역사의 중인으로 남겨 놓으신 것이다.”

필자는 <성 요한 수난음악> 연주와 관련하여 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자신의 곡을 설명해 주셨다. 필

자가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손편지로 곡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시기도 했다. 이 곡을 영락교회에서 연주해 주면 좋겠고, 작품 일부분도 생략하는 일 없이 모두 연주해 달라는 그의 부탁을 주로 하셨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모든 것은 교회 사정에 따라 하십시오.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며 교회와 필자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늘 보여주셨다.

마음이 맑으셨고,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던 박재훈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금, 그분이 남긴 자리가 허전하지만,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편안히 쉬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린다.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음악부

# 예수님의 활동 무대

## 예루살렘·나사렛·가버나움

지구 최대 화약고인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과 나사렛,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무대요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2020년 9월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은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도 예외적으로 계승하기로 하여, 코로나 이후에 이스라엘 성지답사가 수월해질 것이다.

### 예루살렘 : 세계3대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제1의 기독교 성지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성묘 교회가 단연 으뜸이다.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내부 서쪽 언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비아 돌로로사의 끝 쪽에 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였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힌 곳을 골고다(해골이라는 뜻)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며, 이곳을 제1의 성지로 삼아 수많은 기독교인이 방문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마다 이슬람 황금 사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황금돔과 황금문 사이에 성묘교회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사진의 각도를 절묘하게 맞추어서 찍을 수 있다.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중동의 평화를 좌우할 만큼 분쟁이 많은 곳이다. 2021년 5월 7일에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했다. 이슬람에서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 성지로 꼽히는 알아크사 모스크(사원)에는 라마단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아 무슬림 7만여 명이 이슬람 시위에 참석했다.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벌어진 시위를 지지하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레바논에서 하마스의 미사일 수천 발이 이스라엘을 포격했다. 다행히 11일 전투는 극적인 휴전 합의로 끝났다. 2017년 12월 6일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대사관을 이전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있었다. 예루살렘



소기천 교수  
서대문·은평교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원장·성지연구원장

은 아브라함 시대에 언급된 살렘 지역이다(창세기 14:18; 시편 76:2).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데(창세기 22:2; 역대하 3:1),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지점이다.

후대 사람들은 유대 산지에 있는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창세기 22:14)으로 불렀다. (참고, 시편 24:3; 이사야 2:3; 스가랴 8:3) 691년에 이슬람교는 모리아 산에 황금사원을 지었지만, 그 안에 있는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불리는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 있는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그 아래,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성이 시작되는 정상 부근에 세워진 것이다. 모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보다’ 혹은 ‘준비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는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창세기 22:14)가 되기도 한다.

### 이스라엘은?



202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는 9백20만 1,230명(이스라엘 통계청)이다. 1948년 독립 당시에 전 세계 유대인 1,150만 명 중 6% 가 이스라엘에 거주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미미하다. 이스라엘 인구 중 무슬림은 20.9%로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2035년에 아랍인 인구 260만 명(이스라엘 대비 전체 인구의 23%) 중 무슬림 인구는 2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까지 무슬림의 인구증가율이 유대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35년에는 유대인의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다음으로 기독교(2.0%), 드루즈교(1.6%), 기타(4.0%)이다.



골고다 언덕위 성묘교회와 황금사원이 공존하는 예루살렘

다윗 시대에 여부스족이 차지하던(여호수아 18:28; 역대상 11:4) 이름 없는 지역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통일왕국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편 122:6).”라는 말씀처럼,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은 신구약 성경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다윗의 평생소원은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이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편 27:4).”라고 노래한다.

누가복음 9:51~62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실 만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11:4)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2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유대인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당시에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이었지만, 1967년 이스라엘이 6일 전쟁 이후에 빼앗은 곳으로 아직도 요르단 국적의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이기에 해마다 알렌비 다리를 건너서 두 나라를 자주 왕래한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제7일인 토요일이고 이슬람

교의 안식일은 제6일인 금요일이지만, 기독교의 안식일은 제7일인 주일이다.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하면서 저마다 경배하지만,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유대인에게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에 1만 5천 명 정도 살아가고 있다. 무함마드는 예수님을 자기의 발아래 내려놓고 비하하지만, 많은 선교사가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스가랴 14:4에 언급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메시아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구절처럼 메시아의 강림과 연결된다. 감람산 중앙 언덕 남쪽 끝에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자리이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예수님의 승천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감람산 위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여(누가복음 24:50~51; 사도행전 1:9) 승천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두려워한 이슬람은 승천교회의 천장을 돔으로 막았다.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제 소견대로 행한 것이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오신다는 것이 두려운 이슬람은 예루살렘 성벽의 출입문인 아치형 쌍둥이 황금문을 돌로 막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나사렛 :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성읍으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성가브리엘 교회 근처

에 있는 샘물은 광장에 있는 ‘마리아의 우물’까지 흘러간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는 이 우물을 길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6은 천사 가브리



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길로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했음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 했으며(마태복음 2:23),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다(사도행전 24:5). 예수님께서 해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유대에 남아 있던 아켈라우스의 공포정치 때문에 나사렛에 정착했다(마태복음 2:20~23).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두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거한다(누가복음 2:39, 51). 수태고지교회 주변의 주거단지 내에 있는 요셉의 목공소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사렛의 낭떠러지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절벽이었던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진 ‘낙하의 언덕’ 또는 ‘도약의 산’으로 불리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가까운 근처의 벼랑으로 고대에 회당이 있었던 곳이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배척이 있었다(누가복음 4:16~30).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배척(마태복음 13:57,

마가복음 6:16)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읽으실 때 사람들이 다시 그를 대적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암수하여 고치실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마가복음 6:4 이하)’라고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의 일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신명기 18:15~18; 이사야 9, 11, 53장)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해, 나사렛을 경멸 투로 말했다(요한복음 1:45~46). 이는 나사렛이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좋지 않은 평판이 있

었음을 시사한다.

마태복음 4:13과 누가복음 4:16의 공통 구절인 Q(공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독일어 Quelle를 ‘자료’란 뜻으로 사용한다)에서 간략한 단어인 헬라어 ‘나자라’가 유일하게 사용된다. 이 ‘나자라’ 칭호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고유명사이다. 예수님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칭호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히브리어로는 노쓰리, 마태복음 2:23; 누가복음 1:26; 2:39, 51)’이라고 부른 것과는 달리, Q는 갈릴리에서 공

생애를 시작하신 스승을 ‘나자라 예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자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자라’라는 칭호가 붙여져서 다른 나사렛 사람과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오직 나자라 칭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 아직도 나사렛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랍인은 ‘나사렛 예수’를 경멸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이신 ‘나자라 예수’를 올바르게 전도해야 한다.

### 가버나움 :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본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로서 3년 공생애 활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이다. 마태복음 4:12~13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을 기록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

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과 같다. 복음서의 여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법궤 부조

러 곳에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고향’ 혹은 ‘예수님의 도시’라 부르고 있다(마태복음 9:1, 마가복음 2:1).

가버나움의 유적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법궤를 새긴 부조이다. 법궤 하면 네 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상상하는데, 가버나움의 기둥에 새겨진 법궤는 네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밀거나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당의 문 옆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를 넣은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법궤 부조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발견된 만나 항아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회당의 강대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만나 항아리를 보시면서 생명의 떡에 관해 설교(요한복음 6:48~59)하신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가버나움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까지도 믿을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텔훔이라는 곳을 가버나움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이곳 폐허 중에 8각형 건물이 베드로의 가정집으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유일한 유적이다(참고 마태복음 8:14~15, 마가복음 1:29~31, 누가복음 4:38~39). 그러나 이곳 유적 중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고대 회당 유적의 발굴이다.

가버나움에서 누가복음 7:5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자리에 로마의 백부장이 세운 회당이 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 이후에 위에 열거된 대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중시 할 때, 가버나움의 기적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르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선회하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전에는 유대인 선교에 치중하다가 이후에는 이방인 선교에 힘쓰신 것이다.



고라신에 있는 모세의 자리

가버나움 위로 골란고원을 올라가는 산 중턱의 고라신은 모세의 자리가 있는 회당이 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곳에 앉지 말라’는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적지이다. 모세의 자리는 고라신 회당 출입문 오른편에 놓여 있는데, 회당 정면을 향하고 있다. 회당 안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의자라서 순례 여행에서 지친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다. 왜 예수님께서 앉지 말라고 교훈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라신 회당에 놓인 모세의 자리는 복제품이고, 원본은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고라신 회당의 모조품은 혼무암인데, 예루살렘 박물관의 진품은 황톳빛 퇴적암이다. 아무것도 아닌 퇴적암 하나를 놓고 자리다툼하는 인생을 향해서 ‘교만의 상징인 모세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린다. **만날**

## 눈물로 위로하셨습니다

- 1차 산상기도회 후기

해마다 사모하며 올라가던 수유리 기도원을 올 여름도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어도 켜고 끌 줄만 아는 사람이 이번 산상기도 회는 손녀딸의 도움으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1차 산상기도회 첫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김운용 목사 님은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설교 말씀 말미에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마흔다섯 젊은 맏아들을 잃으시고, 교회 가다가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 사랑은 왜 빨리 잊어버릴까요?

지난해 1차 산상기도회 둘째날 막내딸이 하늘로 갔습니다. 암 투병 중이던 막내는 그날도 아침에 제힘으로 일어나 씻고 병원에 갔는데, 병상에서 그 밤을 넘기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너무 감사 한 것은 남정열 교구 목사님이 새벽에 달려오셔서 임종예배를 주관하셨고, 강남교구에서, 종로·성북 교구에서 우리 가족을 살펴주셨던 황광용 목사님이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빈소에 오셔서 기도해주셨습니다.

딸이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이사 갔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슬픈 생각, 분개한 마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아직 젊은 내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청년부에서 섬기고 새가족부에서 섬기던 딸의 흔적을 만나면 아무 데서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김운용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겠지요.

김 목사님은 왜 어머니의 사랑은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왜 빨리 잊어버리는지 물으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바로 제 원망, 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우리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근심과 분노를 다림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나 있는 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떠난 딸 생각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이 다 무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는 자리마다 모든 주름이 짹 펴지듯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분노의 주름이 짹 펴지기를 말씀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막내딸과 작정기도 드릴 때 함께 부르던 찬송입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니다. 주님은 산상기도회를 통해 어쩌면 이처럼 저를 위로하신 걸까요. 말씀 중 부르신 찬송까지도 막내딸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었습니다. “음식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사도행전 27:34)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울사도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을 선포한 첫날 저녁 말씀에서 기도제목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메마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란, 폭풍우가 이는 바다 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송의 꽃대를 세우라는 말씀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1차 산상기도회 마지막 날이 딸이 천국에 간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기도회에서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

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시편 22:2)라던 다윗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로 바뀌는 역사를 말씀하실 때 저는 감사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여섯 살 때 유치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술술 암송하던 막내딸 사진을 보며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내 아픔, 나를 울게 하는 일을 주님 앞에 펼쳐 놓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남**



장이금 은퇴권사  
종로·성북교구

## 나도 엘리야처럼

### - 2차 산상기도회 후기

산상기도회에 앞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중에 감동이 없고 마치 형식적인 듯,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하고 싶은데, 이미 말씀도 읽고 기도생활도 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산상기도회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유난히도 산상기도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 자족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

3일간 진행된 2차 산상기도회 동안, 강사로 오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19장을 통해 본 엘리야는 자족(自足)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그릇 시냇가에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갔고, 가뭄이 들어 말라가는 시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을 경험했고, 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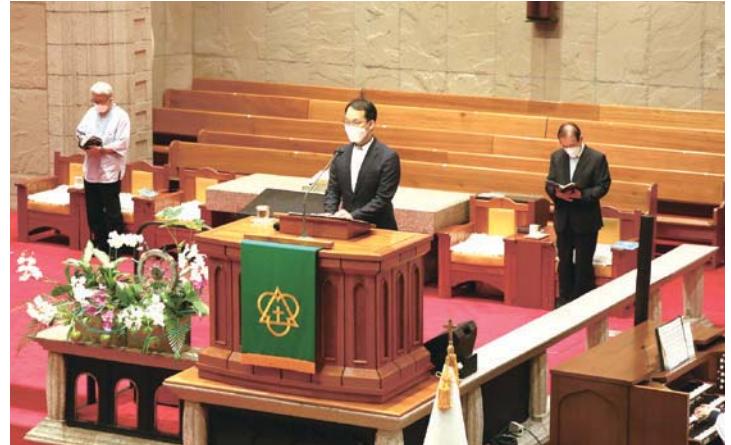
의 때에 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넘어져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듣고 이동하던 이전과 달리, 말씀도 기도도 없이 임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번 아웃(burn out)된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음식과 쉼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도 아닌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엘리야가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편안함과 안락함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한 엘리야는 나와는 다른 대단하기만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을 끊고 현실의 두려움으로 가득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야고보서 5:17)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가 나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하나님의 깊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것은 정작 저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



도 청종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시선을 땅에 두었기에 성령이 아닌 불평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을 끊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젠가 늦은 밤에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갈 때, 보안요원이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 해주는 캠퍼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무서움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텐데, 누군가가 함께 걸으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 한 명이 있어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시니, 그럼 얼마나 든든한 거야? 우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와 함께하시지만 달라진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더 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

려고 합니다. 훗날 제 안에 전도와 사랑의 명령, 곧 아버지의 명령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감당했다고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에 넘어지는 저를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김효진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 수유리 기도원의 추억

올해로 61회를 맞은 산상기도회가 교회에서 열렸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2021년 여름 산상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봉사를 모집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또다시 코로나 19 방역 4단계가 적용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상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수유리 기도원 산상기도회에서 섬기던 추억을 공유한다.

### 수유리 기도원의 여름

해마다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열렸던 7월 말과 8월 초 산상기도회를 떠올려 본다. 내게 여름은 수유리 기도원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어려운 요즘은 언제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갈급한 마음이다.

생활부로 봉사했던 어느 해. 각 교구에서 몇 명씩 차출되어 2박 3일 동안 좀 무서웠던 노 권사님의 지휘 아래 식당 뒤쪽 평상에 둘러앉아 손발 척

척 맞추며 각종 채소를 썰었다. 그때 뵈었던 노 권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지만, 섬김의 뜨거움이 넘쳤던 그분들의 열정을 지금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때가 무더운 장마철인이라 북한산 자락에서 힘차게 훌러내리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몇 분의 성도들이 참석할까를 관심사로 경쟁처럼 1차, 2차를 비교했다. 숙소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좁은 방에서 칼잠을 자고, 새벽에 기상한 후 식사 준비에 피곤한 줄 모르고 봉사했다. 매 끼니마다 식사 줄은 끝없이 이어졌다.





###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마지막 날 냉면

집회 마지막 날 점심으로 내놓는 냉면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 냉면국수 삶는 뜨거운 열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봉사했다. 배식하는 집사님들은 큰 가마솥에서 국수를 삶아내며 1차 1,200그릇, 2차 1,500그릇이라고 2차가 많다고 기뻐하며 신나게 냉면 대접 숫자를 세느라 정신이 없었다. 간식으로 수박, 옥수수, 감자를 돌리는 풍경은 장로님들의 훈훈한 미소와 함께 실로 정겨웠다. 특히, 노 권사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숙소와 기도원 나무 그늘에 삼삼오오 즐거워하면서 1년 중 유일한 휴가라고 행복해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으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 봉사도 예배요 기도임을 체험한 시간들

주방 봉사자에게도 기도와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기도회 3일 차에는 주방의 모든 일을 서둘러 끝낸 후,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 중보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

3일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팔과 손목의 통증이 시작됐다. 그리할지라도 두 손을 번쩍 올리고 기도하던 중 뜨거운 기운이 손끝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 순간 성령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산상기도회가 마무리되었다. 봉사도 예배요 기도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귀한 경험을 간직하고 내려왔던 소중한 간증의 기억이 지금도 떠오른다.

어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추억의 시간을 떠올려 봤다. **만남**



안자이 권사  
관악·동작·금천교구  
권사회 부회장

## 온라인으로도 즐거웠던 여름수련회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열렸습니다.  
홍보출판부가 주관한 성경학교 주제와 활동을 담은 사진, 그림, 원고 공모에  
여러 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응모 사진을 게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외모, 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곧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내 여름의 즐길이는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여름을 재미있게 즐기세요!

프린스 킴

김치맨&깍두기맨

나는 마는 구조

오탕구 박사



# 우리는 예수님의 ‘강철 군사’입니다

## - 중등부 온라인 여름수련회를 마치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방침으로 인해 교회학교도 대면 예배의 제한과 ‘온라인 예배’라는 낯선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등부는 온라인 겨울수련회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상반기 6주 동안 Zoom 프로그램을 통해 YDS 제자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겨울수련회와 YDS 제자훈련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는 비대면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의 근육을 튼튼히 성장하게 했습니다.

### 병영처럼 꾸민 기념관 4층

7월 첫째 주일, 영·유아, 유치부를 제외한 교육부서의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강화되었고 짧았던 2주간의 만남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뀌었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기획 중이었던 7월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의 중등부 여름수련회도 급작스런 거리두기 강화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온라인 겨울수련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중등부 친구들이 넉넉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베다니홀에서의 저녁 집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학생들은 커녕 선생님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은 기념관 4층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강철부대’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강철부대 – 믿음의 병사를 찾아라’(디모데후서 2:3~4) 주제로 기념관 4층 예배실을 군대 병영처럼 꾸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교사들의 귀한 수고로 아이들에게 보낼 택배 상자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성경책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재료, 담임선생님의 손편지와 정성 어린 간식을 담아 수련회 시작 전 모든 중등부 학생들 집으로 배송했습니다.

### 온라인은 훈련 도구

7월 23일, 드디어 막을 올린 온라인 여름수련회! 이틀에 걸쳐서 레크리에이션, ‘군대 음식’ 만들기, 친구들의 영성과 감성을 터치하는 강의와 고민 상



담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7시에는 수련회 하이라이트인 저녁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련회 강사 목사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태섭 목사님께서 ‘엘리야와 요셉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유튜브에 아이들이 올린 댓글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학원 갔다가 뒤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프로그램 중간중간 올리는 ‘출석’ 댓글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서로를 축복하자며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거실 또는 자기 방에서 수련회 프로그램과 저녁 집회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친구 따라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한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서 참여해야 했기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른도 쉽지 않았을 그 긴 시간을 집중하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낸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군사—강철부대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온라인이라서 많은 청소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등부는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80% 정도의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몇몇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학생 아이들 힘들지 않나?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도 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세대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빨리 만나자!”. **만남**



최준호 집사  
강동·송파교구  
중등부 교사

##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대

– 35기 전도훈련 1단계 수료 간증

선교부 MFE(선교현장영어훈련)에서 리더로 섬기는 터라 토요일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전도 폭발훈련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음 전파의 문이 많이 막혀버린 이때 MFE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전환되어 줌(zoom)으로 진행되는 전도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전도훈련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전도훈련으로 이끄신 성령님

1단계 전도훈련을 신청하면서도 하반기에 MFE 가 대면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 2단계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도 잠시, 시댁 전체의 구원과 가족 전도라는 오랜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전도훈련이 한 주 한 주 진행될수록 감동과 회개의 눈물로 심장이 터질 듯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도훈련은 줌을 통한 복음 제시가 가능했기에 주님은 먼저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사는 친언니부터 전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언



이혜경 권사  
안양·수원교구

니는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었으나 일본인 형부를 만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요리 및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언니는 주변에 교회가 없어 23년이나 못 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언니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한 언니에게 복음을 제시하니,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여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웬지 모르게 항상 불안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의 친정 가족들도 직접 못 만나지만, 온라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문을 보냈었는데 중보기도가 더해져서 순직하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언니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제 마음이 가슴에 얹혀있던 돌을 내려놓은 듯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고, 하늘에서부터 귓가에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돌아온 영혼을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조카도 일본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형부에게도 복

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훈련 중 어느 날은 불교 신자인 대학 동기에게 “이번에 전도훈련을 받고 있으니 내가 전하는 복음 제시를 한번 들어 달라”고 권유했고, 자신이 불교 신자라며 사양하는 친구에게 “훈련의 일환이니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다시 권유하여 복음 제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니 친구는 성령에 압도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본인의 입으로 시인한 친구도 놀랐고, 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도훈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선물

전도훈련 중에 저를 직접 훈련하신 훈련자님과 서로 격려하며 많은 기도와 도전을 주신 그룹장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정맥을 진단받아 몸이 부쩍 약해지신 친정어머니도 전도훈련 중에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면서 생기를 회복하신 것 또한 전도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 중 하나입니다. 전도훈련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가장 크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저를 설레게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날**

**초대합니다**

**2021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2021. 9. 18~12.11 (총 13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훈련비 : 3만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요^^**

**신청방법 :**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광고 QR, 전도부 사무실(기념관 6층, 주일오전)

**신청기한 :** 9월 3일(금)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앱을 열고 가까이 대시면  
신청서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전도부 전도훈련팀**

#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선교사,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 PCK 세계선교사회

2021년 7월 6~7일, 이를 동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 제목으로 ‘2021 PCK 세계선교대회 및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 본당과 베다니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예배 및 집회와 선교세미나, 선교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CK는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의 약자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통합교단을 말합니다. 교단 창립 때부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여, 현재 세계 93개국에 835개 정, 1,55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으로 선교지에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걷고 계신 PCK 세계선교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분께서 기도로 함께하셨으며, 우리 교회 선교부(해외선교), 여전도회, 행정처 등 많은 곳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코로나도 비껴간 선교 열정

이번 선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33개국 134명의 선교사님이 참석하셨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서 발이 묶여 참석하지 못하신 선교사들이 유튜브로 참

가하셨다며 안부를 전하기도 했고, 국내에 계시지만 인원 제한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치고 힘겨워하는 선교사들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쏟으며, 기쁨의 땀을 흘리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선교지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현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선교사들과 외빈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는 저를 비롯한 봉사자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코로나로 순교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선교대회 중 간절한 바람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 160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인이라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때문에 마음을 졸인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행정처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고,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적극 협력하여 우려했던 상황 없이 주님의 은혜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가장 감동한 점은 코로나19라는 선교의 벽에 가로막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7월 6일, 7일 양일간 우리 교회 본당과 베나니홀에서 열린 PCK 세계선교대회 및 정기 총회. 온라인으로도 병행했다

계신 선교사들의 기도와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려움 중에 더욱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떨쳐 일어나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정책을 논의하며, 에큐메니컬 선교를 통한 다양한 선교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순교하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보내는 선교사의 소명

선교사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께서 선교 현장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는 저에게도 감사의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모든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세계선교사회 회장으로 헌신하시며 임기를 마치신 이희재 선교사님과 앞으로 부서기로 섬겨주실 황관중 선교사님께도 주님께서 새 힘주

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선교대회를 마치며 저희 3여전도회 중점사역인 해외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대면 예배와 모임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삶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며 주님께만 집중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만남**



정해옥 권사  
강남교구  
제3여전도회장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 고(故) 정치근 은퇴장로를 회고하며

### 원자폭탄 버섯구름 앞 젊은이

한 젊은이가 있었다.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장송동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제대를 다녔던 까닭에 조선특별지원병이라는 태평양전쟁 학생징용 대상이 된다. 용산역을 출발해 히로시마에 배치된다. 공습 첨보를 쫓아 그와 일부 부대원은 급히 외곽으로 이동한다. 아침이 되었을 때 평소 듣지 못 하던 ‘웅~’ 하는 짙은 저음 소리에 하늘을 쳐다보았다. 생각 못 한 까마득한 고공에서 시내 상공으로 진입하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어느 순간, 비행 편대가 갑자기 급선회하며 돌아 날았다. 1분쯤 지났을까 강한 섬광에 전혀 눈을 뜰 수 없었다. 감았던 눈 겨우 뜨니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이었다. 살아남은 군인들은 처참한 폐허 속에서 끝없이 시체를 치워야 했다.

###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



정천우 장로  
강남교구  
교육부장

일본의 패전과 고국의 해방. 한반도 북녘은 공산주의 천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귀국 후 결혼한 그는 해방 이듬해 서울에 거주하는 삼촌, 소설가 정비석 선생을 찾아 가족과 함께 월남한다. 기습

남침 6·25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1월, 병으로 두 딸을 잃는다. 어느 날 아내가 보니,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그는 갑자기 늙어 있었다. 서울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그는 수척하고 폐도 약했으며 자주 아팠다. 병가를 얻어 드러누웠던 그는 깊은 산 조용한 곳을 찾아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새벽 밝기 전 마지막 기도하던 그에게 갑자기 뜨거운 성령이 임한다. 온몸이 뜨거워져 눈물 콧물 대성통곡 땅을 치며 몇 시간을 부르짖는다. 면 훗날 그는 회고한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일이 내게도 있었다.”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경험

그는 평생 시간을 아끼며 살았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생활공간 여기저기에 시계가 여럿 있곤 했다. 절박한 순간을 타고 넘던 경험이 삶 속에 녹아 있었다. 어느덧 9월 9일이면 이 글의 주인공인 필자의 부친 정치근 은퇴장로가 하늘나라 가신 지 1년이 된다. 헬라인들은 흘러가는 일반적, 수평적 시간을 크로노스(ckronos)라 한다. 부친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터지는 참혹한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것은 ‘죽음의 크로노스 경험’이었다. 헬라인들은 경험적, 수직적 시간을 카이로스(kairos)라 한다. 자식들을 한 번에 모두 잃은 뒤 몸까지 병들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찾아



정치근 은퇴장로(사진 가운데)가 성악가 오현명 선생(오른쪽)에게 상패를 드리고 있다

기도하던 중 성령을 체험한 것은 ‘생명의 카이로스 경험’이었다.

### 젊은 세대, 소명감으로 다가서다

참혹한 원자폭탄 투하 현장에서 살아난 그는 방사능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신이 빨리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것은 마음의 치유, 몸의 치료를 의미했다. 그는 새로운 소명감으로 젊은 세대에 다가서고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나중에 ‘젊은 날의 노트’라고 이름 바뀐, 『내가 만난 Y여고 임석영 선생』을 썼다. 학생 건강을 위해 『학생과 건강』을 썼다. 청소년들이 영어 잘하도록 영어책도 부지런히 썼다. 필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부친 모습을 설명할 단어는 소명감 외에는 없어 보였다.

### 세월이 흐른 뒤에…

성악가 고 오현명 선생이 불렀던 부친 작시(作詩) 노래에 ‘젊은 김삿갓, 늙은 김삿갓’이란 표현이 있다. 부친의 성령체험 전후의 삶을 생각하면 이 표현이 떠오르곤 한다. 그가 장로 은퇴하고 수 년 후에 썼던 베다니광장 청동부조의 글은 영락

교회 시작을 이렇게 표현한다.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하여…’ 부친 또한 고난을 피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노랫말을 쓴 찬송가 473장이 떠오른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중략)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불들어 주옵소서. (후렴)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는 노년에 낙상사고로 고생하시다 백수에 이르러 하늘나라 가셨다. 부친 입원 중 가족이 가졌던 신앙 체험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내려놓을 수가 없게 한다. 글 쓰는 이 순간 문득 시야가 눈물에 가리운다

### 성령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가 톨스토이의 결론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성령이 부친을 찾아오셨다. 그것은 위로부터 찾아온 사랑이었다. 부친의 삶을 이끈 것은 카이로스의 경험 곧 성령이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만날**

## ‘덜 쪄진 찐빵’ 같은 나

저는 세 번째 만에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1년여 수련 기간을 보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피택자들에게 세족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어찌 목사님께 닦으시도록 내밀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족식 중에 제 차례가 되어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과 함께 따스한 손길로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섬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을 포함하여 교인 80여 명인 작은 교회에서 교사, 구역장, 찬양대, 차량봉사를 하며 시골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때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는 젊은 날의 꿈이었고, 영락교회에 출석하여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했던 저는 업종 특성상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았지만, 1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외근 중 예배를 드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환경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 우물과 살모사의 위험에서 살려주신 주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 여섯 살 때 깊은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부부터 시작하여 성년이 되어서도 서너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 떠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람을 함께 있도록 보내주



셨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돌려세우셨습니다. 성년이 되어 가장 처음 죽음 앞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군 복무 중에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정기 휴가를 얻어 부모님의 벼농사를 도우러 갔습니다. 시커먼 논바닥에서 살모사에게 물렸습니다. 맨발로 무작정 큰길로 뛰쳐나간 저는 우연히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고 전도사님과 함께 길 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병원에 가서 비싼 주사를 두 번이나 맞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강으로 추락하는 저를 지켜내신 하나님

얼음판 길에서 제가 운전하던 티코 차량이 미끄러졌던 날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대구백화점으로 출장을 가야 했던 저는 수요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다음날로 출장을 미뤘습니다.

현대백화점으로 외근을 나가기 위해 잠실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향하던 중, 4차선을 달리던 버스를 추월하려고 80km까지 속도를 높였는데 버스도 같이 속도를 높이더군요. 버스를 먼저 보내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제 차가 순간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 날 오전에 내린 진눈깨비가 차가운 강바람에 얼어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행렬 중 맨 앞의 그레이스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차는 3중 추돌을 일으키고 제 차는 반대편 인도와 차도 중간에 척 걸쳐 섰습니다. 충격이 조금만 더 커으면 잠실대교 난간을 치고 한강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에어백도 없이 짊음을 믿고 안전띠도 매지 않은 채 운전했던 터라 충돌 후 핸들과 가슴이 부딪혀 수초 간 숨이 전혀 쉬어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 수술 중 저혈압 쇼크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들어주심

‘결석 제거수술’이라 간단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수술 중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체외충격파 시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서울백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원인 모를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혈압이 30정도 수치 까지 떨어져서, 집도의 비뇨기과 과장님과 마취과, 심장내과 의사가 총출동하여 5개의 링거를 목에 꽂고, 온갖 주사를 다 놓은 후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수술 후 수 초간 의식이 돌아와, “숨쉬기가 어렵

다”라는 말을 하고 이내 의식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SOS에 박지운 목사님과 박상엽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돌 빼려 혼자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병실 5일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또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 설 때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큰 은혜를 받았으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덜 익은 짹’처럼 달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푹 쪄지고 강같이 흐르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남은 생을 주님께 선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부서를 잘 섬기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정성껏 소임을 감당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 드립니다. **만날**



김병기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새가족부 서기

## 말씀과 기도, 삶을 나눈 소그룹 리더 교육

### 소그룹 모임의 시작

올해 초 1월 10일, 주일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8시경 저희 안수집사회 임원 네 명은 김운성 위임 목사님께 신년 인사차 들러서 안수집사회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임목사님께서는 소그룹전담부와 협의해서 안수집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 어떠하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의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에 소그룹 담당이신 탁현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안수집사회 기별 대표모임이 줌(zoom)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탁 목사님을 초대하여 소그룹 활동에 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소그룹의 핵심은 삶과 신앙의 나눔

소그룹이라고 하면 잘 모르신 분들은 동호회 같은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탁현수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영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8주간의 교육 과정 중 첫 4주는 소그룹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한 강의 위주로 진행했으며, 나머지 4주는 조별로 소그룹을 구성해서 삶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개인적 신



양 스토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모임을 거듭할수록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안수집사회 모임에서 함께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 중심으로 각자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교제를 나눠본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소그룹을 통해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영적인 도전을 주고받는, 말 그대로 신령한 위로와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 어색했던 간증이 은혜로움으로

제가 속한 소그룹 모임 중에 나누었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집사님은 30년 동안 가족 사업으로 거액을 투자하여 대기업 면세점에 납품했는데, 한순간 다른 업체가 비집고 들어와 거래

가 끊겼습니다. 묘안이 달리 없어서 사업을 그만 두기로 하니, 그동안 함께 했던 직원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몇 개월 지나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고 면세점 사업의 특성상 계속 사업을 했더라면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지금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B 집사님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보통은 과장급들이 나가는 해외 지사에 대리 직급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도착해보니 상사이신 부장님과 단둘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장님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 후배 과장이 오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집사님을 무척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시장 개척도 힘들지만,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숙소를 써야 하는 관계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주일에 예배드리려 교회에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사로 귀국할 터이니, 집사님 혼자 시장을 개척하라고 하여 더욱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장님은 귀국했고 혼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서 현지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 제자를 세우는 소그룹

이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나눌 수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들이 경험한 은혜를 공유하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 번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영락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알고 지냈지만, 이번 소그룹 나눔을 통해 각자가 만난 주님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소그룹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단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 양성을 꿈꿉니다. 우선적 전략은 내가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8주간의 리더 교육이 끝나면서 리더별로 3명의 소그룹 멤버가 모여서 예비모임을 갖고, 7월 18일, ‘소그룹의 날’ 찬양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정대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사역을 사용하셔서 영락교회 안에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락 성도님이 소그룹에 동참하시어 영락교회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고, 본인의 영적 성장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2019년 IT미디어부 교역자로 부임하고 3년 가까운 시간을 영락 공동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참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 IT미디어부 사역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IT미디어부라는 사역의 최전선에서 접하며 많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큰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걱정 또한 그만큼 커져 왔습니다.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드릴 때보다 유혹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경우는 참 많았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제게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 멀리 돌아 들어선 미디어 목회

간혹 처음 뵙는 분들에게 IT 미디어와 관련한 목

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목회가 아닌 이런 특수한 분야를 섬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올 때마다 ‘제 방황의 결과’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니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죠. 저 또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에 공감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이러한 상황들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편하게 놀지도, 어울리지도 못한 채 지내다 결국 부모님의 뜻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흥미를 느꼈던 TV 방송 분야에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곳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목회자와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했던 셈이죠. 자유로운(?) 생활에 놓이게 되자 결국 신앙생활의 기본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주일에는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지만, 주중 평일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지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가까운 지인들조차 제가 먼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저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제게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왔는데, 그 순간 마음에 큰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분의 한마디가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저를 미디어 분야에서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길로 갈 수도 있었던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연단하셨으며 방황 중에 했던 경험들조차 지금 이 시대에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기라

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이 코로나를 통해 조금 더 드러났을 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방황하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 연단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하신 우리의 모습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만남**



현성인 전도사  
IT미디어부

# 아름다운 성전

## 함께 청소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1서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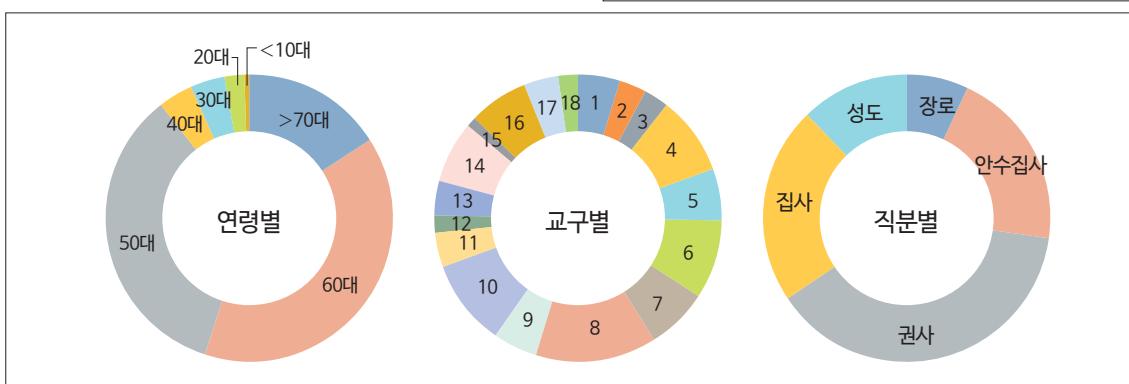
2021년 3월 28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내 교회, 내 손으로 깨끗이’ 캠페인 동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취지는 청소 봉사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인으로 거듭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사전예약이 시작되자 무려 수백 명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애초 예정했던 캠페인 장소는 ‘벧엘’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기간인 3개월 만에 ‘베다니홀’과 ‘본당’까지 확대되는 놀라운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 데이터로 보는 교회사랑 실천

청소 봉사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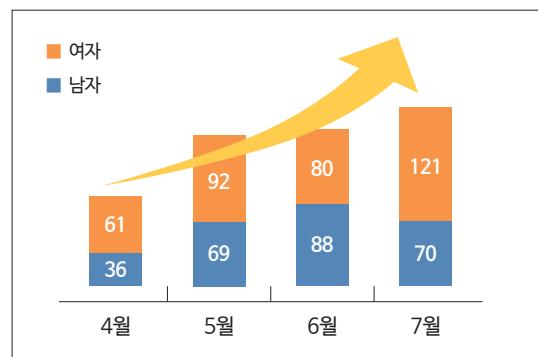
〈표 2〉 연령별·교구별·직분별 참가현황



~12시에 시행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청소 봉사의 특징은 ‘폭발적 증가’와 ‘고른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표 1〉은 자원봉사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월 말까지 무려 629명 이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향후 더욱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 1〉 월별 봉사자 증가 추이





교회 마당에서 기도로 시작하여 벤엘·베다니홀·본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웠다

〈표 2〉에서 보시는 대로, 자원봉사자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고른 참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별로는 가족과 함께 참석한 어린이에서부터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구 별로는 1~18교구가 빠짐없이 고르게 등록했습니다. 모든 직분의 성도들이 폭넓게 참여했을 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등록했습니다.

### 간증으로 보는 교회사랑 실천

모든 봉사는 자원봉사부 최재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양공동체가 자원한 경우, 해당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참석하여 기도로 격려와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소 봉사는 여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신양공동체, 그리고 제직 부서들… 지금까지 ‘개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총 133명입니다

다. 이 중에는 거의 모든 시간에 참여하여 무려 28회를 봉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엘 자모실, 본당 등을 정해서 매주 화요일 또는 토요일에 총 13회를 봉사해주신 은퇴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성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모두 한결같이 “진짜 좋다. 다음 기회에 또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입니다.

가족 단위로는 다섯 가족이 청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 내외분과 함께 가장 먼저 참여했고, 자원봉사부의 부장 장로님과 차장 안수집사님 가족들도 초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작은 일이라 생각하며 매주 토요일 봉사하고 계신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분은 성도님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벤엘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벤엘 성전에 대해 특별히 감사한 기억을 가진 가족은 이 기억 때문에 여



위임목사님부터 솔선하신 교회 청소 봉사에 많은 가족과 신양공동체가 참여했다

러 차례 벤엘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어린 자녀와 함께 봉사한 가족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는 경험은 소형교회뿐 아니라 대형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권사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강대상을 닦는 특별한 지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신양공동체별로는 당회원,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가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공동체와 함께하니 더욱더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한결같이 간증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는 정말로 커다란 감동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영락 청년들이 봉사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짧게 옮겨봅니다.

“함께 쓸고 닦으면서, 영락 청년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한날 한시에 연합해서 청소 봉사를 한다면 교회 사랑과 청년부 연합에도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 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깨끗이 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참여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청소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 손으로 깨끗이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같이 봉사했던 분들과 평소에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셨을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조금이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원하셔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께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꿈꾸는 땅,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자원봉사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청소 봉사를 벤엘에서 베다니홀까지 확대하게 된 계기는 안수집사회에서 마련했습니다. 베다니홀은 계단식 성전이고 규모도 커서 청소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안수집사회는 매달 첫 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이후로 일정을 정하고, 강력한 청소기 로봇 두 대를 기증했으며, 쪼그린 자세로 좌석 바닥의 묵은 청소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본당 청소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입니다. 권사회는 지난 10여 년 백병원 봉사를 해오신 백병원팀, 모든 청소 도구를 갖추고 즐거이 참석하시는 코스모스회는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원했습니다. 또 자원봉사부에서 10년 동안 매주 본당 청소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온 본당환경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팀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청소 봉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이 캠페인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고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권오란 권사  
중구·용산교구  
자원봉사부 담당권사



##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 신앙의 토대가 된 부모님의 신앙 유산

생전에 아버님은 장로, 어머님은 권사로서 오랫동안 영락교회를 섬기셨다. 생애 말년 치매로 고생하셨던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며 노트 5~6 권이 넘는 분량의 성경을 필사하셨다. 평소 어머니는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곤 하셨다. 그러나 나는 ‘과연 내세가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신앙적 방황을 겪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한편으로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기도 했다.

몇 해 전 7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영락동산에 함께 모신 이후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영락동산을 수시로 찾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묘소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뵙자고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브리서 11:1~2)’하신 말씀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그 순간 이후로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 ‘영락동산에 묻히신 부모님을 통해 주님은 부족한 나를 영락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라

는 감사한 생각과 함께 그날의 기억은 마치 기적의 순간과도 같은 소중한 기억으로 각인됐다. 하늘나라에 대한 든든한 확신이 들면서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밝고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날 거라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들이 생전에 보여 주셨던 기도와 믿음 생활의 신실한 모습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신앙의 본보기이자 든든한 신앙의 토대가 되었다.

###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주는 지혜

어머님은 생전에 여러 성경 구절을 즐겨 암송하셨다. 어머님의 애송(愛誦) 구절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을 꼽으라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오른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던 중에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 게리 채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신앙 서적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 묵상과 독서 시간은 내게 사랑의 실재적 의미, 특히 부부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로 다가왔다.

채프먼은 그의 책에서 ‘사랑의 탱크’라는 표현을 들어 인간의 본성 속에는 타인으로부터 사랑

받기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의 주장을 빌어 말하자면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심연에는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 이른바 ‘사랑의 탱크’가 있다.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사랑의 탱크가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하게 된다. 부부간에도 ‘감정적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다면 내면은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채프먼은 그의 책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유형별로 제시하며 특히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사랑의 결혼생활을 이끌어가는 비밀을 설명한다. 부부간의 사랑도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식어버리거나 사라진다고 많은 이들이 호소한다. 채프먼은 그들의 호소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모른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는 아마도 남편의 행동 속에서 표현되는 사랑을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진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만 한다.

채프먼이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배우자가 지난 잠재력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다. 배우자와 함께하며 상대방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은 두 번째 사랑의 언어다. 상대방을 늘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선물은 세 번째 사랑의 언어이며,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봉사는 네 번

째 사랑의 언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다정한 스킨십은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다.

### 성경적 지혜로 사랑의 탱크를 채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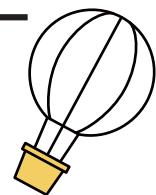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며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성경적 지혜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가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린도전서 13:4~7). 말씀을 암송하시던 어머님의 음성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만남**



정영주 권사  
강남교구

##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락애니아의집



영락애니아의집은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들이 함께 살며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애니아(aeneas)는 사도행전 9장 33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애니아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남산 기슭에 자리한 영락애니아의집에는 중증장애인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가족들과 직원들이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중증장애인 중 7명이 영락교회 사랑부에 출석하고 있으며, 사랑부 진영채 목사님께서 시설로 방문하시거나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힘들었지요. 평소에도 외출이며 활동이 어려운데 엄격한 방역 기준으로, 또 건강을 잘 살펴야 하는 우리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한여름 지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영락애니아의 집은 ‘무정차 드라이브’ 프로그램과 ‘감성 캠핑’ 등으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꿈의 엔진을 달다: ‘웁스(OOPS), 다시 하지 뭐!’**  
웁스 ‘OOPS’는 OT(작업치료), PT(물리치료),



ST(언어치료) 치료사와 애니아 친구들이 등받이 벤치, 스윙 그네, 진동마사지기, 장난감 등 다양한 치료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도구를 직접 탐색하고 다양한 동작을 취해보면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애니아 친구들의 밝은 모습 속에서 소소한 생활 속 행복을 누려봅니다.

### 플레이브릭 프로그램: ‘축복 하나! 은혜 둘!’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고 블록으로 가상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화관, 동물원, 패스트푸드점, 워터파크 등 가고 싶은 곳을 정해



나만의 기차, 기찻길을 조립하여 만들며 기차여행을 떠나는 것이지요. 가상 세계 속에서 여가생활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정하고 블록의 색깔, 모양을 직접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통해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 루프탑 풀파티: 애니아의 맞춤형 ‘루프탑 풀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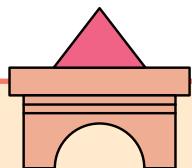


애니아의 집 3층 하늘정원에 미니풀장과 파라솔, 해먹으로 야외풀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시원한 물에 풍덩! 더위를 날려 보내고, 해먹에 누워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

영락교회 교구별 여전도회 5개 단체와 영락대학부 등에서 월 단위 봉사로 장애인들의 일상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오래전부터 꾸준히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과일과 빵 등의 먹거리, 행사지원 등 물질로 섬김을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식사나 산책 시 도움이나 말벗 대화상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남](#)

## 영락애니아의집



### 설립 동기와 목적

기독교 사회사업을 수행해 온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영락교회 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7월 28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 구건물 자리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신축·개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황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21명(70%),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가 6명(20%), 실비입소가 3명(10%)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22명이 교대근무를 하며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관리 담당 간호사와 각 분야 재활치료사, 시설의 행정, 안전관리,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8명이 장애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집사  
중구·용산교구  
영락애니아의집 원장

## 신약개발 과정과 최신 경향

### 신약개발의 이해

코로나19 백신 신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중한 전염병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매우 단기간에 신약 허가를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신약개발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리며, 임상에 들어간 약제가 허가 받을 확률도 1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에 투입하는 연구 자금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신약개발을 성공하면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에게 치유와 희망을 줄 수 있고, 개발 회사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은 크게 아스피린과 같이 작은 저분자 구조로 만들어지는 ‘합성 신약 의약품’과 인슐린 단백질과 같이 분자량이 큰 고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바이오 신약 의약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림과 같이 개발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고여욱 집사  
성남·분당교구  
종근당 바이오연구소 상무이사

신약개발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약 ‘후보물질 창출’입니다. 후보물질 창출 과정은 신약의 표적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여 개발대상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성신약은 수천~수만 종의 예비 후보물질을 탐색하여 최종 후보물질 한 종을 도출하고, 바이오 신약도 수십~수백 종의 고분자 예비 신약후보를 탐색하여 최종으로 한 종의 바이오 신약후보를 도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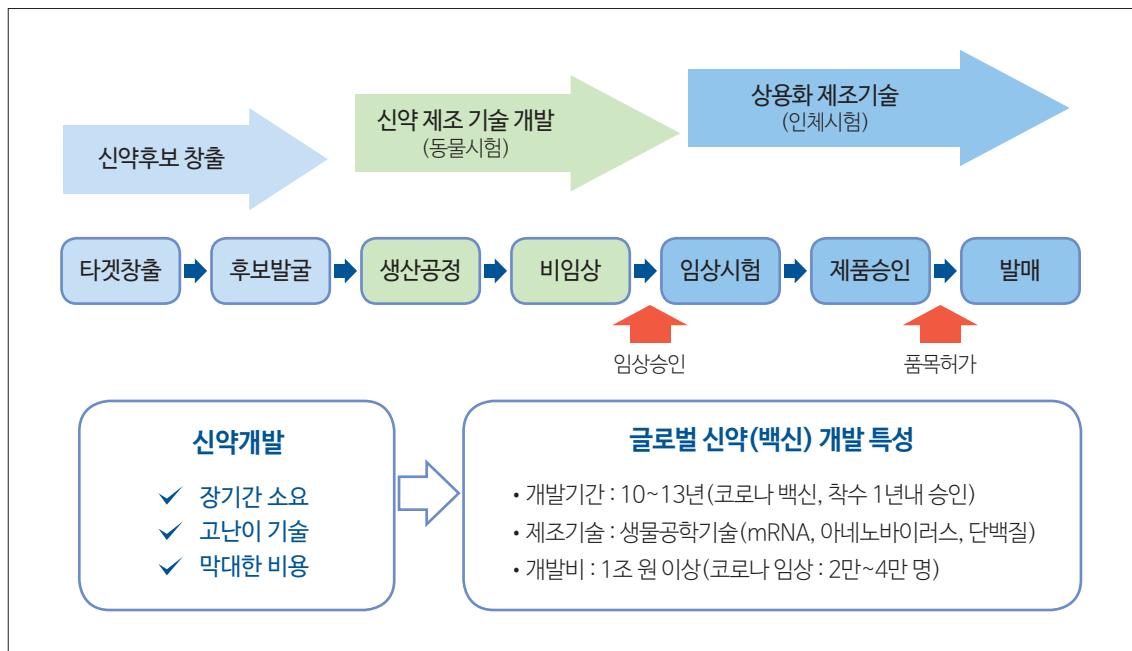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비(非)임상실험 혹은 전(前)임상실험’ 단계로서, 창출한 후보 신약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 안전성, 효과 등을 예측 및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합니다.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면, 국가기관(예를 들면,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은 FDA)에 동물실험의 결과 및 부작용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한 후, 인체 투약 여부를 심사하여 임상 허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에는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1상은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물질을 인체에서 평가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인체 건강한 지원자 20~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는 후보물질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최적의 용량과 용법 결정을 위해 환자(수십~수백 명)를 대상으로 2상 임상을 합니다. 후보 신

## ■ 글로벌 신약(백신, 항체 신약) 개발 프로세스



약의 안정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면 더욱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 및 부작용, 안전성 등을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3상 임상시험입니다.

3상에서는 1천~5천 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합니다. 임상시험의 최종 성공률은 약 12% 수준으로 1상 임상시험부터 3상까지 통과할 확률은 100개 신약 중 대략 12개 정도입니다. 임상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인 신약 '허가 신청과 승인'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 허가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약개발을 위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복잡하고 장기간의 임상시험과정을 거치지만, 복잡한 검증과정을 거친 신약도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약물과 약물, 혹은 약물과 식품 등의 상호작용과 사람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판 후에도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개발은 4단계의 매우 복잡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로 세분된 전문 영역이 서로 다른 수백 명의 연구 집단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신약이 탄생합니다.

신약개발 과정은 마치 영락교회 찬양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봉과 악기 소리에 맞추어,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하되, 협업을 통한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대면, 비대면으로 신자들 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긴밀히 교제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프로페셔널’이어야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도 모이기를 힘써,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며 긴밀히 ‘협업’하는 팀워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약을 창출하는 열매를 거둡니다.

### 바이오 신약개발의 최신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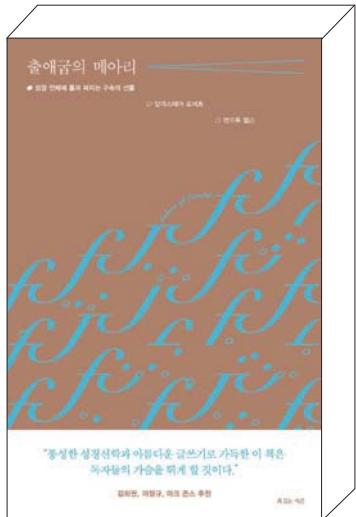
100여 년 전,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수명을 40대에 머물게 할 정도로 폐렴, 결핵, 설사

및 장염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주로 더러운 물이나 상한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온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이었으며, 1928년 플레밍에 의해 미생물균을 죽이는 항생제 신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인류가 사망했습니다.

상하수도 및 공중위생 시설이 개선되고 다양한 항생제와 예방백신이 개발되면서, 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120년이 지난 현재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대에 이르러 약 40년 이상 연장됐습니다.

현재 인류를 괴롭히는 난치성 질환으로는 암(악성종양)·알츠하이머·치매 등의 신경질환, 아토피·건선·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고혈압·당뇨·비만·안과질환(예, 황반변성) 등의 만성 성인질환이 일상적인 대표 질환입니다. 전 세계 많은 제약회사와 의료인들이 난치성 질환을 위한 약제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남**

## 『출애굽의 메아리』



알라스터 로버츠, 앤드루 윌슨 지음/송동민 옮김/  
복있는사람/2020년

성경은 음악입니다. 하나님이 작곡하신 이 위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서곡으로, 요한 계시록을 피날레로 연주하는 한편의 교향곡입니다. 이 곡조 속에는 반복되는 주제와 리듬이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분명한 주제 곡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주제는 성경 속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변주합니다. 그 위대한 주제는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기억하기 쉽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화음의 세부 사항을 탐구하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구속의 선율

『출애굽의 메아리』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음악적 읽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를 가장 압축적이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출애굽’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때에도 바로 같은 압제자가 있었고(헤롯), 아이들을 멸절하라는 죽음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구원자가 나타났고(예수님), 광야를 거쳐 공동체를 이루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모세의 70인 장로들처럼 제자들을 세워서(열두 제자), 정탐꾼을 파송하듯 그들을 파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직접 내려진 양식도 있습니다(오병이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유월절을 통해 피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 ‘물과 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지상명령).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결국 ‘구원 이야기의 메아리’인 것이지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거대한 교향곡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리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리듬을 듣는 사람은 삶의 타이밍과 속도가 결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물과 피로 구원받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와 장엄한 교향곡을 이 책을 통해 다시 깨닫고 누리 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조두형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선교부, 의료선교부

##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눕니다!

###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2021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이 ‘혼돈의 시대, 나를 찾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찐” 나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에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가치관이 생기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율로(YOLO), 다원주의 등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본받아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기간: 9월 1일 ~ 30일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http://library.revhan.net>)  
문의 : 02)2280-0293

#### 선정도서 소개

##### 1. 중·고등부(중·고등부는 응모자에 한하여 선정도서 무료 배부)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이재욱. 좋은씨앗.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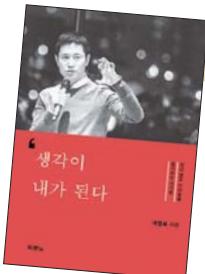
내가 왜 사는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어!  
넌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와 청소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삶의 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소년, 믿음의 기초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답 없는 너에게」 손봉호·옥명호. 흥성사. 2015

노(老)철학자 손봉호 교수가 십대의 눈높이로 인생의 물음표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10대들에게 띄우는 15통의 편지를 엮은 책이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10대, 인간관계, 공부, 신앙 어느 것도 쉬운 게 없고 정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10대들이 자신을 찾아가는데 올바르게 분별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도록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 2. 중·고등부·대학부 공통



###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두란노. 2021

이 책의 저자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이야기한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 책 속에 녹아져 있어 그저 있는 그대로 평이하게 써놓았을 뿐인데도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쌓여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성장하는지 배우게 된다.



## 3. 일반부

###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존 오트버그. 두란노. 2019

이 책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영생,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크리스천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정작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 복음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정의를 제시한다.



### 「회복력 있는 신앙」 제럴드 L. 샷처. 성서유니온. 2020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한 책이다. 저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회복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낼 것을 권유한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그에 따른 답변과 나아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않고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의 시간」 폴 손. 두란노. 2017

청년의 관점에서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청년들의 삶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소명을 찾는다는 건 결국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괜찮다

이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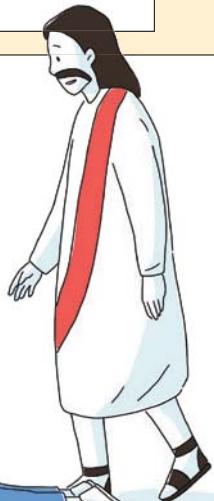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백하지만  
결국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로 자꾸만 넘어지는 나에게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힘이 빠지길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넘어져 엎드려 있는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벼운 위로가 아닌...

괜찮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내가 너 넘어질 것도 알고,  
 이미 너의 약함도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다시 나의 손을 잡으렴  
 나와 함께하니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과거나 현재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약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저는 자꾸 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또다시 주님을 놓치고 혼자 달려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지만  
 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매일 주님 곁에 있고 싶지만  
 연약함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 제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세상의 가벼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넘어질 것도 알고  
 네 약함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다시 내 손을 잡으렴.  
 나와 함께하니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내 힘을 빼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집니다.

-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에서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 새벽의 노래

‘새벽의 노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함을 감사하여 올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형상화했습니다. 그 은혜가 잘 익은 사과처럼 풍성하게 저의 마음에도 맷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1~5)  
말씀대로 저의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도록 다짐해 봅니다. 만날

이정희 권사\_종로·성북교구

## 서동희 은퇴권사,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수상

서동희 은퇴권사(홍보출판부 자문위원)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제33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을 수상했다. 건국대 명예교수인 서 권사는 서울대 미대를 거쳐 미국 캔자스대에서 석사, 미주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경 속 내용을 도예 작품으로 풀어내는 크리스천 도예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도자와 조소를 결합한 실험적 작품들을 통해 도자 예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8월 4일(수) 오후 3시 종로구 인사



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제56회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 정기전 개막식과 함께 열렸다.

취재 이현지 청년위원

## 교회 소식

## news letter

## ‘청년들의 일터 속 선교적 영성과 삶’ 2021 영락청년 미션워크

청년부(부장 홍영남 장로)는 여름 특별집회 ‘2021 영락청년 미션워크’를 지난 8월 15일(주일) 오후 1시 베다니홀에서 개최했다. ‘청년들의 일터 속 선교적 영성과 삶’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사진)이 말씀을 전했다.

이날 김 총장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창세기 2: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자신의 일터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과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청년들의 비전을 고취했다. 이어서 영락 청년들은 16일(월)부터 한 주 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매일매일 하나씩 주어지는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며,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을 이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청년부

## 설악산수양관 리모델링 공사 마쳐, 8월 13일 준공 기념예배



설악산수양관이 한 달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13일(금) 준공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수양관 운영위원장 김재완 장로의 기도 후 남정열 목사가

‘성막을 세우며’(출애굽기 36:1~7)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난 1978년 한경직 목사의 기도와 장치혁 안수집 사의 부지 기증으로 설악산 자락에 세워진 설악산수양관은 그동안 복음통일과 영성을 위한 기도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설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그동안 빗물 누수가 있었던 지붕 징크 공사와 교회 벽면으로 빗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부서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들어가 문제가 있었던 벽돌 줄눈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준공기념 예배 후 공사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제공 설악산수양관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다른그림찾기

가정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 9월 목회력

3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하반기 개강
4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5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7일(금)	심방준비회
19일(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제직회
26일(주일)	전교인 만남주일(간증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 9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말씀의 꽃찾기



※ 그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2021년 9월호 통권 571호

발 행 2021. 9.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윤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http://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1

# 북적북적

## 독서행사 공모전



### 공모주제

흔돈의 시대, 나를 찾아가는 길 - 이 세상에서 “찐” 나로 사는 법

### 응모기간

2021. 9. 1(수) ~ 9. 30(목)

수상자 발표 : 10월 31일(주일)

### 참가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청·장년)

### 응모부문



#### 독서감상문

A4 1~2매, 글자크기 11포트

선정도서 읽고, 감상문 형식으로 표현



#### 독서편지

A4 1~2매, 글자크기 11포트

선정도서 읽고, 편지 수신자를 선정하여 표현  
예) 수신자 : 본인, 가족, 친구 등



#### 회화&웹툰

JPG 또는 PDF 파일

선정도서 읽고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표현



#### UCC

- 유튜브 업로드 가능한 파일로 제작  
(avi, wmv, mp4, swf, fla 등)

- 유튜브 업로드 후 해당 url을 이메일로 제출

선정도서 읽고 3분 이내 영상으로 표현

### 선정도서

중·고등부

-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이재욱, 좋은 씨앗, 2015
- 「답 없는 너에게」 손봉호·옥명호, 홍성사, 2015

중·고등부·대학부 공통

-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두란노, 2018

### 일반부 (대학부, 청·장년)

-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존 오트버그,  
두란노, 2019
- 「그리스도인의 경체성」 오스왈드 챈버스, 토기장이, 2017
- 「회복력 있는 신앙」 제럴드 L. 샷처, 성서유니온, 2020
- 「청년의 시간」 폴 손, 두란노, 2017

**시상식** 11월 10일(수) 영락교회 본당

### 시상내역 상금 및 상품

구분	중·고등부	인원	일반부	인원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15만원	1명	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7만원	2명	문화상품권 10만원	3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3명	문화상품권 5만원	5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없음	

### 수상작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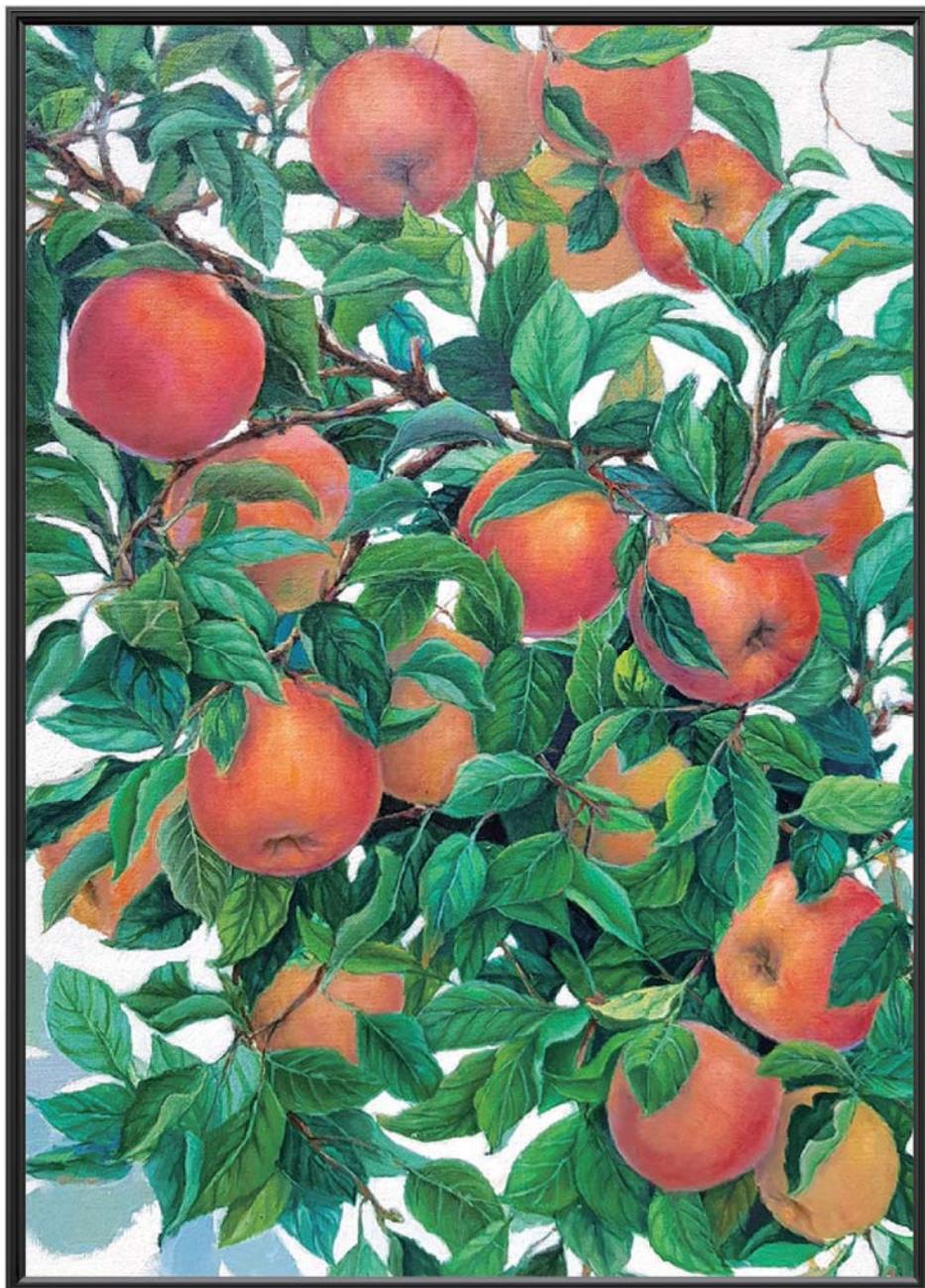
11월 7일(주일) ~ 11월 20일(토) 베다니 광장

### 응모방법

전자우편(clibmi@naver.com)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  
접수 시, 파일명은 '성명\_제목'으로 제출, 작품 표지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문의 : 02-2280-0293

영락화랑

새벽의 노래 (시편 100:1~5)



이정희, Oil on canvas, 60.7×72.7cm, 2020년